

제19회 한국여성대회

일시 2003년 3월 8일(토) 낮 1시 장소 대학로

■ 주 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 원 :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KBS  MBC  SBS  한겨레  여성신문사

 우먼타임스  미디어  시민의신문  Women's News

■ 협 찬 :    KB  국민은행

■ 주 최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지역여성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 회원단체 : 강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목회성당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여성물어는전주여성공동체, 새물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합, 제주여성회, 학교육을위한한국학부모회, 충북여성인구회, 평화통일뜨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목회성당소, 한국여성노동조합협의회서울, 인천, 광주, 마산상원, 부산, 전북, 인천, 한국여성인구회고양, 광주, 군포, 김포, 서울남부, 서울남서,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지전화연합서울(강서영인),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강화, 김해, 광명, 성남, 수원, 시흥, 안양, 김해, 창원, 군산, 영광, 익산, 전주, 한진, 청주, 부천, 진해, 김포, 목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지전화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시민·사회·문화·인간단체 : 경제참여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갈사영어비지오일, 도서관만 도서관의문화, 상해매국절을위한한소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URAI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여성재단,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호주세제지를위한시민의모임, 환경운동연합

우먼프리론

"당당하게 내이름으로 자유롭게 받자"

주부님의 생활자금을 도와드리는 주부명의
최고 1천만원 무보증 신용대출

- 상품특성 - 무보증, 무담보, 직장유무, 거래실적 무관
- 대출자격 - 배우자 또는 본인소유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한 주부
- 대출금리 - 최저 연 9.9%
- 대출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중 자유롭게 택일
마이너스 대출은 처음 약정하여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부담이 전혀없고, 사용한 기간, 금액 만큼만 이자부담



캥거루통장

"자녀의 미래를 위한 약속"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엄마의 필수 준비물"

- 자녀 맞춤형 통장
 - 형편따라 자유롭게 저축(2~18년, 월 3만원~500만원)
- 자녀종합보험 무료가입
 - 소아3대암, 상해, 유과, 왕따 보험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보험 가입
- 자동이체 및 장기거래시 0.2% 금리우대
- 교육자금등 해약없이 중간 분할인출 가능
- 자녀 교육자금 대출지원



애니콜같은 브랜드,
10개는 더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10년 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34위로 높아진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합니다.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TFT-LCD모니터처럼,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선정된 TV처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우리 나라에도 글로벌 1등 기업이 있어야 하기에...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건강하세요”

“예뻐지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남양알로에가 전하는

푸른 약속

세계적인 알로에 농장. 세계 권위의 알로에 연구소!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알로에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남양알로에는 인류 건강의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수출되는 남양알로에!

알로에의 심심한 생명력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Nature's Best
남양알로에
www.aloe4you.com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남양알로에

●남양알로에 고객 상담 전화 (무료) 080-022-7575

국내에 알로에를 소개하여 세계에 알로에를 공급하고 있는 남양알로에!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푸른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양알로에 전국 대표 전화 1588-1976



레티놀, 그 이상의 레티놀 아이오펜 레티놀 2500 이노베이션

아이오펜 레티놀이 또 한번 진보합니다.
더 미세하고 더 부드러워진 레티놀로
주름걱정, 더 짝 펴고 사세요!

NEW 1

LASS 기술에 의한 초미립자 레티놀의 안정화
피부구조 유사액정 시스템으로 레티놀을 안정화시켜
신선한 레티놀이 피부 깊숙이 빠르게 스며듭니다.
오래오래 강력한 주름개선 효과를 만나보십시오.

NEW 2

미세한 주름 사이로 작용하는 고분자 미세 파우더
1-30um의 폴리메틸렌 고분자 파우더가 미세한 주름의 굴을
메워 빛을 산란시킴으로써 기대 이상의 주름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NEW 3

자극없이 피부를 돌보는 레티놀 신성분 MPA
MPA(Menthyl 3-aminopropane Phosphonic Acid)성분이
레티놀을 처음 만나는 피부나 레티놀에 민감한 피부까지도
효과적으로 지켜줍니다.

꿈의 신기술 LASS(Liquid-crystal Association Stabilizing System)은?
레티놀 안정화 기술로 장시간 안정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기술
피부구조 유사액정 시스템에 레티놀을 담아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새로운 레티놀 안정화 방법



LASS기술에 의한 레티놀의 안정화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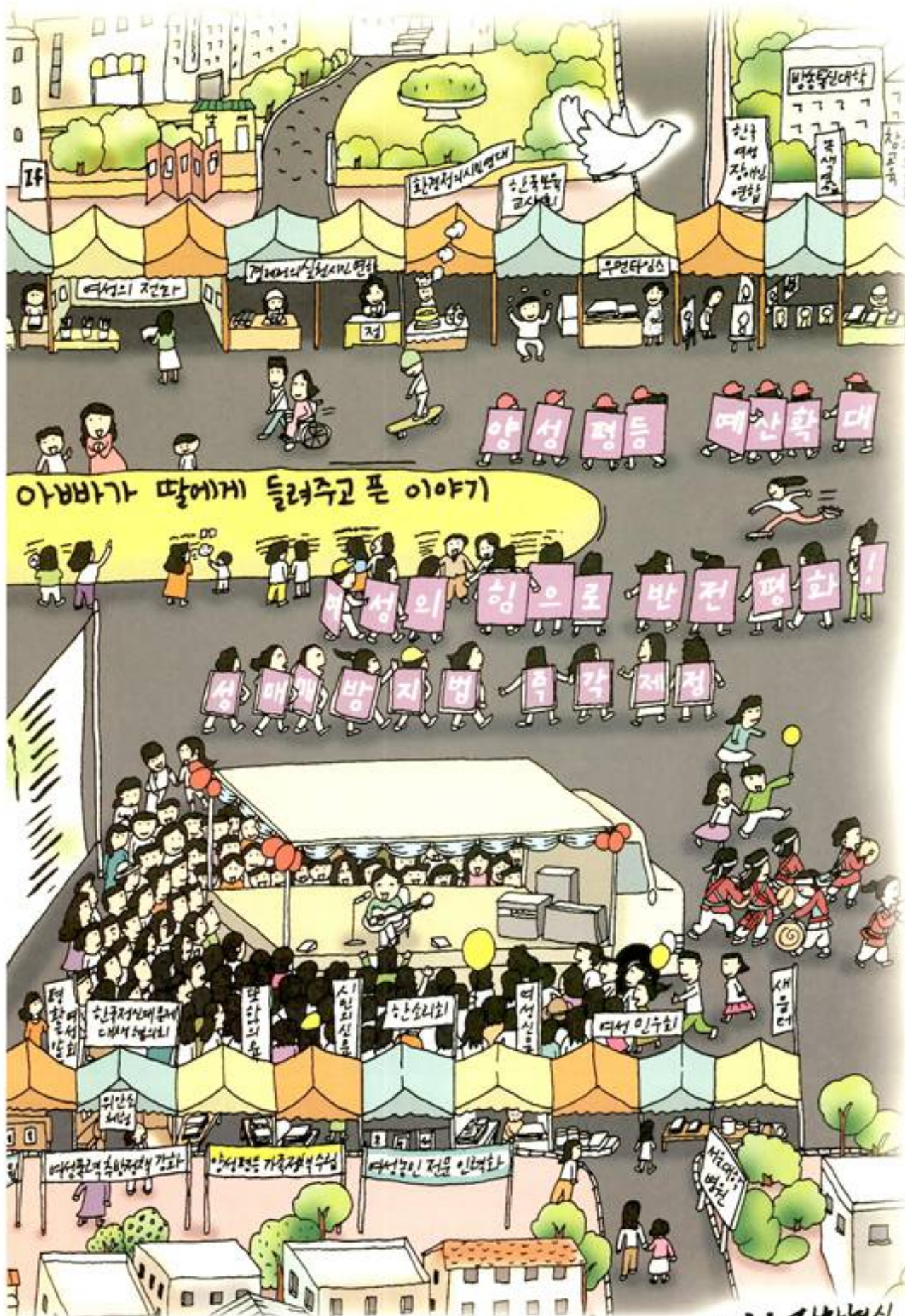
전달된 레티놀의 형태



010/534
8878 2500
이노베이션 / 45ml

행사장 배치도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2003.3 지상화면실

- 06 행사장 배치도
- 08 프로그램 및 이벤트
 - 10 2003년 기념 여성선언
 - 12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 14 [여성권익 디딤돌 & 걸림돌] 소개
 - 16 함께하는 사람들
 - 18 평화선언문
 - 20 다 함께 부르는 여성노래
 - 22 참가단체 연락처
 - 24 여성연합 후원회 소개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한국여성 노동자회의회	국민은행	IF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환경정의 시민연대	한국 보육교사회	우먼타임스	한국여성 장애인연합
노색연합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재한중국여성회	세움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신문	성매매근절을 위한한소리회	시민의신문	도서출판 도하나의문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여성문화 예술기획	한국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연구소	호주재대자를 위한시민의모임	말사랑 아빠지모임	LRART	수빈아카데미

프로그램 Program [사회 : 최광기, 권해효]

■ 시민난장 (11:00~16:00 / 대학로 일대)

- 바람기둥에 달긴 사연들~아빠가 딸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 URART와 딸사랑아버지모임이 함께 하는 미술마당
- 기부자의 길 : 평등사회를 향해 나눔의 정신 발휘하는 기부자를 위한 거리, 한국여성재단 진행, 순생한방을 무료 제공
- 공짜 장터 : 페이스페인팅, 대회 팸플릿, 타로카드 점보기, 페미니스트저널 IF 잡지, 여성신문, 우먼타임스를 무료로 나눠드려요~
- 현대 놀이 마당 :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 각종 전시 : 사진전시, 책전시, 자료전시, 포스터 전시
- 물품 판매 : 장애우가 제작한 생활용품 판매, 여성센터 회원들의 수공예품 판매, 김밥 판매
- 서명 운동 : 호주제 폐지 서명전, 환경문제 관련 서명전, 가정폭력 추방 서명전
- 캠페인 : 환경보전 캠페인, 반전평화 캠페인

■ 축하공연 (13:00~14:00 / 대학로 야외무대)

- | | | |
|-------------------------------|------------------------|------------------------------|
| · 마음을 이어주는 여성노래 배우기 | 예술집단 '오름' | '축하해요 3·8세계여성의날', '내사랑 여성연합' |
| · 여성해방 함께 가는 길목에서 부르는 힘찬 노래공연 | 참여연대 '참종다', 환경연합 '솔바람' | '선언', '사노라면', '꿈아에서' |
| ·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는 사랑의 울림 | 여성장애인 '맑을터 핸드벨 콰이어' | '사랑의인사', '도레미송' |
| · 어깨 들썩 들썩 신명나는 어머니 민요 공연 | 한국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 | '방아타령', '뱃노래' |
| · 3·8의 열정 다함께 차차차 | 젊은 댄스스포츠 동호회 '댄슬릭' | 라틴댄스 축하공연 차차차, 자이브 |
| · 여성의날 축하하는 신나는 응원 | 이화여대 응원단 '파이루스' | '여성연합, 그대에게' |

■ 기념식 (14:00~14:45 / 대학로 야외무대)

- 개막 행사 : 예술집단 '오름'
- 참가단체 기수 입장 및 2003년 여성선언 : 여성연합 이오경숙·이강실·정현백 공동대표
- 주제 공연 1 : 대구여성회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팀'의 "성매매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퍼포먼스
- 주제 공연 2 : 여성문화예술기획 워크샵 후속모임 '마구'의 반전평화 춤퍼포먼스
- 반전평화 여성선언 : 여성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공동대표
- [여성권익 디딤돌 & 걸림돌] 발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 거리퍼레이드 (14:45~16:00 / 대학로에서 종로공원 국악정까지)

- 이동무대에서 벌어지는 축하 공연 : 가수 안치환, 가수 안혜경, 예술집단 '오름'
- 퍼포먼스
 - 장벽통과 퍼포먼스(대학로) : 성매매·전쟁·차별 등을 상징하는 대형걸개그림을 통과하며 퍼레이드 시작
 - 평화기원 퍼포먼스(행사장 일대) :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기원하는 100인의 집단 퍼포먼스
 - 해방맞이 퍼포먼스(종로공원) : 전쟁의 위협을 벗고, 차별과 억압을 쫓는 마무리 퍼포먼스
- 퍼레이드 :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스케이트보드 동호회, 풍물패 등 다양한 그룹과 일반시민 참가단 2000명의 퍼레이드



message

2003년 여성선언

평등과 평화의 봄을 여는 3·8 여성선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여성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은 제 95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9차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는 날이자, 2003년 한해를 꽃피울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새 봄의 햇살 속에서 일싸안으며 뜨거운 자매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양성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알리는 여성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만들어봅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987년 창립 이래 사회민주화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부활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 위협과 한반도 핵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인들과의 연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이 2003년 3대 중점과제를 여러분 앞에 선언하며, 여성·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불법적인 향락산업을 몰아내고,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군산 대명동, 개북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꽃다운 나이에 최창살 속에서 죽어갔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딸, 그리고 자매입니다. 선불금에 묶인 현대판 노예, 압선업주와 유착세력, 그리고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문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이 땅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들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여 불법적인 성매매 압선 산업을 뿌리뽑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품으로 돌려줍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국회를 향해 외칩시다. 즉각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하라!

둘째,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생명과 공존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와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는 자국의 이익과 석유자원의 약탈을 위해 양심적인 미국인과 세계각국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부시정권의 오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확산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맞서 전쟁반대와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오경숙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강실



여성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셋째, 양성평등한 성인지적 예산 확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상의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성 평등 예산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정부가 배정한 국가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0.28%에 불과하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예산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고,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요즈음,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기초한 양성 평등한 예산의 계획과 배분 및 집행에 대한 요구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이자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평등예산 확보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성평등의 실현은 성 평등 예산의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성연합은 여성 모두의 뜻을 담아 양성평등 사회, 평화공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의 여성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위한 힘찬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3년 3월 8일 제19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 우리의 선언 ”

- 성 산업 규제하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 전쟁예방과 평화실현 보장하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라!
- 양성평등 예산 보장하고, 성인지적 예산정책 수립하라!
-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인권 보장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award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고 실천해 온 여성주의 문화예술분야의 마이더스의 손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해경

이해경 대표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 페미니즘 예술활동을 주류무대에 진입시키는데 산파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해경 대표는 남성적 기준으로만 들어진 문화를 여성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여성주의적 문화 방식으로 여성 스스로의 시선과 목소리를 발견해 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경 대표는 여성운동에서조차 문화를 선전, 선동의 도구로만 인식하면 시절, 문화를 통한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여성문화예술기획'을 시작하고 여성의 아픔과 꿈을 그리며 대중을 만나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극 '자기만의 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조네스의 꿈', '마요네즈', '밥퍼·레퍼' 등으로 이어졌고, 여성주의 전용 문화공간인 극장 '마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해경 대표는 1997년 4월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를 개최하여 현재 4회까지 진행시켜 그늘에서 활동하던 여성영화인력들을 발굴하고 영화를 통한 여성언어 읽기를 통해 주류문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해경 대표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보적인 주체들과 함께 하는 문화운동을 만드는 한편, 여성영화제뿐 아니라 여성미술제 등과 같이 여성들의 문화적 여망을 결집하고 펼쳐 보일 수 있는 문화적 사건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성문화운동의 선구자입니다.



■ 주요 약력

- 1980~1982 크리스찬 아카데미 프로그램 간사
- 1986~1989 여성민주화 문화기획 실장
- 1990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장
- 1992~현재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1995. 9 북경세계여성대회 NGO 문화분과 대표로 활동
- 1997~현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1998 공연예술진흥협의회 위원/문화부 문화정책 자문위원
- 1999~현재 사랑의 친구들 기획자문위원/문화개혁시민연대 부집행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서울시 여성위원
- 2002 문화관광부 축제평가위원 - 문화기반시설 평가위원 / 환경부 기획 홍보 위원

■ 연출 및 기획

- 1984 <전태일 한복이웃> 연출 (독일)
- 1985 <공장의 불빛> 연출 (독일)
- 1987 <꽃잎이여 이야기들> 연출 (여성 노동자 문제) 외 수면 연출
- 1988 인형극 <떡배와 통배> / 환경 연극 <강은 만물려>(공해 문제) / 무용극 <내사랑 한반도> 연출 (반전 반핵 평화) / <들불로 다시 살아> 연출 (YH 사건) / <말들이 일어나라> 연출 (사무직 여성과 노조 결성)
- 1989 <여성노래 한마당> 기획·제작, 연출
- 1990 <배영, 용철 위령제> 연출 (빈민 여성, 학아 문제)
- 1991 <평화 한마당> 제1회 열린 음악회 (현재 KBS의 열린 음악회의 전신)
- 여성, 그 살아가는 이야기 기획·제작, 연출
- 1992 <정신대 아리랑> <정신대 문화제> 기획·제작, 연출 / 연극 <자기만의 방> 기획·제작
- 1993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기획·제작
- 1995 연극 <아마조네스의 꿈> 기획·제작
- 1995 제 4 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한국문화행사 전달 기획·제작, 연출
- 1997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1998 연극 <마요네즈> 기획·제작
- 1999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99 여성미술제 <활취들의 행진> 기획·제작, 운영위원
- 2000 연극 <밥퍼·레퍼> 기획·제작/과천 마당극제, 여성연극제 기획
- 2001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 연출
- 2002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동아시아 여성미술제 기획·제작



소외된 여성들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아픔을 희망으로 꽃 피워내는 여성문화운동가, 이혜란 여성예술집단 '오름' 前 대표

이혜란 여성예술집단 '오름' 前 대표는 80년대 여성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성문화운동판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성 높은 여성문화인입니다. 이혜란 前 대표는 1980년대 여성평우회와 여성노동자회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폭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사례극을 만들고 노동자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노력테일 등을 만들며 노조를 지원하는 문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이혜란 前 대표의 관심은 여성노동자, 기층 여성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여성들의 문제를 문화적 방식으로 알리는데 쏠려 있었습니다. 소외된 현장에 대한 이혜란씨의 끊임없는 열정은 결국 1997년 1월 여성예술집단 '오름'을 창단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예술집단 '오름'은 현장에서 기층 여성들의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그룹이 드물었던 90년대에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노동자·여성실업자·가정폭력·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공연물을 만들고 직접 대중을 찾아가 공연을 올리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오름'의 이러한 활동은 여성운동의 이슈를 춤과 노래, 극,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릴으로써 여성운동을 대중화시키고 여성운동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혜란 前 대표는 2002년 군산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이 긴급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 여성적 방식으로 '여성장'을 기획하는 등 여성운동의 현장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혁신적인 여성운동가입니다.



■ 주요 약력

- 1983~1986 한국여성평우회 문화부 활동
- 1987~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문화부 활동
- 1992~1996 여성문화예술기획 설립, 기획위원
- 1997~2002 여성예술집단 오름 설립, 대표
- 1997~1999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
- 1998~1999 한국여성전화연합 문화위원
- 1999~2002 전국여성노동조합 문화위원

■ 연출 및 기획

연극: [말뚝이 마당] [우리 승리하리라] [돌봄로 다시 살아] [권형주는 조합] [막장을 간다] [갑대기를 벗고서]
[돌꽃이여 돌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노동자] [세상은 여자하기 나쁨] [하늘 끝에서 부르는 노래] 등
대본집필, 기획, 연출, 출연

인형극: 성목락 여방 인형극 [하늘이의 비밀], 환경 인형극 [땅아의 물속여행] 기획, 연출 및 출연

노래극: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선택] - 1998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 대회

[희망, 아름다운 미래] - 200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 대회

[그래 좋아, 우리들 손으로] - 2001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 대회

[말뚝이 항쟁한 세상을 위해] - 호주제 폐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순회공연

[일하는 삶으로 당당한 삶으로] 등 기획, 연출 및 출연

음악회 기획, 연출: [여성노래한마당] [양희은 콘서트] [열린 음악회] [청소년 음악회] [참사랑 실태조사 이해강 콘서트]

[생명을 노래하는 푸른음악회] [여성의 전화 기금 마련을 위한 재즈콘서트] 등

북경세계여성대회: 한국 NGO대표로 참가하여 [정신대아리랑] 공연(1995년)

영상물 기획, 제작: [순영이의 사랑이야기] [여성의 역사] [여성노동자 투쟁사] [돌꽃이여 돌꽃이여 그대이름은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운동의 흐름] [저희 이야기] 등

1998, 1999, 2000, 2001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대회 기획연출

2002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연출

디딤돌 여성권의 디딤돌 & 걸림돌 소개

평범한 여성직장인에서, '직장내 성희롱' 알게 된 후 끝까지 싸워 이긴 여성노동자 김매환씨

50대 여성노동자인 김매환씨는 죽암하유계소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통해 자신이 당했던 일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희롱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성희롱 가해자의 억고소로 구속 수감되고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2001년 청주노동사무소의 성희롱 혐의 없음 결정을 뒤집고 2002년 7월 청주노동사무소로부터 가해자의 성희롱 혐의 결정을 받아냈고 가해자가 직접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관행처럼 처리되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롯데 성희롱 사건 승소를 얻어낸 여성노동자들 (50명)

롯데호텔 노조원들이 여성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다가 2000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폭로하고 회사 쪽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긴 소송 끝에 2002년 한국 최초로 기업의 성희롱 예방 의무와 함께 성희롱 발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기업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예방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알리안츠 사내부부 우선해고 승소를 얻어낸 박보선, 명영선, 이선이, 김옥희씨

98년 알리안츠 생명에 근무하던 박보선, 명영선, 이선이, 김옥희씨는 7명의 동료들과 함께 회사측의 강제적인 사내부부 우선해고에 불복하여 2000년 5월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 측은 여성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아내가 사직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지만, 이들은 사내부부 우선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1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사내부부 우선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집회 현장을 누비었고, '83명의 인질'이라는 영상물을 함께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침내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사내부부 우선해고가 여성 차별적인 범죄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페미니스트저널 IF

페미니스트 저널 IF는 1997년 5월 여성의 욕망을 아는 잡지라는 모토 아래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로 출범하였다. IF는 '웃자! 뒤집자! 놀자!'라는 파격적인 잡지 정신을 모토로 하여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억압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적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안티 미스코리아 이벤트를 개최하여 미스코리아 대회의 반여성성을 알리고 미스코리아 대회를 폐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자현 검사

구자현 검사는 2002년 6월 8일 선불금 갑취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탈 성매매 여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검사는 또 성매매 업소에서 탈출한 이들 여성들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윤락업소 중개인이 모씨를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및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성매매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업주를 구속 기소한 이번 결정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된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할 경우 혐의를 인정, 여성들을 구속 처리해 온 사례에 비춰볼 때 여성인권에 입각한 올바른 결정으로, 향후 재판에 시금석이 되었다.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2002년 7월 12일 한나라당 비서실장이던 김무성 의원은 장상 총리서리가 임명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미국 정보기관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유고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어떻게 여성총리에게 국방 등 국정 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하였다. 결국 김무성 의원은 여성 유권자들의 거센 분노로 인해 비서실장직을 사임하였으나, 정당의 비서실장으로서 남성 우월주의에 휩싸여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서울시장

2002년 12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 강화라는 명목아래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복지와 여성업무를 함께 맡는 여성·복지 향상 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 내의 과로 변경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은 98년 8월 시혜적 복지 수준이던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능동적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설되었고,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져왔다. 여성정책관실의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여성단체들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여성정책전담기구 축소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폐지를 추진하였다. 결국 여성정책담당관실은 2002년 12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를 통해 폐지되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을 오히려 과거로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출연진 소개

함께 하는 사람들

16



노래 공연 솔바람 · 참종다
(환경운동연합 · 참여연대 노래패)



핸드벨 공연 맑음터
(여성장애우 핸드벨 파이어)



퍼포먼스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팀
(대구여성회)



민요 공연 단비
(한국여성민우회 풍물패)



춤 퍼포먼스 마구
(여성문화예술기획 워크샵 후속모임)



라틴댄스 공연 댄솔릭
(젊은 댄스스포츠 동호회)



응원전 파이루스
(이화여대 응원단)



개막공연 예술집단 오름
(이소영, 김애영, 김수현, 오혜란, 심희정, 오은숙, 한유진)



사회 최광기



사회 권해효



가수 안치환



가수 안혜경



총연출 이해란
음향 은백음향
걸개그림 김영화



미술감독 홍현숙
무대 위즈텍
기획 황금명륜, 김미영



음악감독 이원경
디자인 큰사람디자인

도움 주신 곳



순삼 한방물 물품협찬
(주)에경



페이스페인팅 주관
수빈아카데미 (02-365-3100)



(주)엠케이마스타
(주)골든피아

여성손목시계 협찬
(주)엠케이마스터, (주)골든피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평화선언문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남·북·해외 여성선언

한반도 반전평화 여성 선언문

지난해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여성통일대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이 조국통일은 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 중요한 계기였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각계층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대세에 발 걸음을 힘차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열망과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땅에 감돌고 있는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굳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 땅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민족의 운명과 매 개인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2. 북과 남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남과 북의 여성들은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해외여성단체들과 함께 세계 평화애호여성들과도 연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
4.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내세우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길로 나갈 것이다.

2003년 3월 8일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바라는 남북여성 일동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 남 여성 통일대회
2002년 10월 16일-17일. 금강산



congraturation

다함께 부르는 여성노래

축하해요, 3·8세계여성의 날

이혜란 글 이원경 곡 ● ● ●

Two columns of musical notatio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score consists of 13 staves.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is simple and repetitive, suitable for a group song.

축 하 해 요 소 공 세 계 여 성 의 날
여 성 해 방 투 쟁 의 투 쟁 해 요
모 능 수 있 는 여 성 해 방 없 이 는 날
세 계 는 이 세 계 세 계 는 이 세 계 세
전 부 여 성 오 늘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일 직 일 아니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평 등 을 구 달 리 투 쟁 해 요
세 계 는 이 세 계 세 계 는 이 세 계 세
전 부 여 성 오 늘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일 직 일 아니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투 쟁 해 요
평 등 을 구 달 리 투 쟁 해 요

내사랑 여성연합

이해란 글 이원정 곡 ● ● ●

수 천 년 이 어 온 성 착 별 역 사를 딛 고 여 성

의 이 름 으 로 새 역 사 만 들어 가 자 나 하나

의 힘 비 옥약 하고 보 잘 것 없 - 어 도 여 성

연합 - 우리들 의 단 결 은 위 대 하 - 리 라 그 어 렵

자 별과 그 어 렵 역 압도 우리 갈 길 막 을 수 없 어 가 정

에 서 - 일 터 에 서 거 리 에 서 들 러 오 는 힘 찬 함 성들

폭 력 과 빈 곤 다 날 러 버 리고 두 주 먹 불 끈 귀 미 내 름 는 길을 가

자 - 가자 자 유 평 등 평 화 를 향 해 가 자 가 자 가

자 - 가자 여 성 해 방 내 일 을 향 해 가 자 가 자 가

D.S.



참가단체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 02-2273-9535

여성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 031-233-8663

경남여성단체연합 | 055-266-37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062-225-6078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053-421-6758

부산여성단체연합 | 051-852-6648

전북여성단체연합 | 063-287-3459

여성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 055-282-9603

기독교여민회 | 02-2265-7957

대구여성회 | 053-421-6758

대전여민회 | 042-257-3534

부산성폭력상담소 | 051-513-247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051-802-6083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02-747-2442

새울터 | 031-663-4655

수원여성회 | 031-241-7530

안양여성회 | 031-458-3050

여성사회교육원 | 02-2278-7705

울산여성회 | 052-266-715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02-529-6349

제주여민회 | 064-756-726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02-708-5894

충북여성민우회 | 043-252-81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02-2264-8649

포항여성회 | 054-275-7436

한국보육교사회 | 02-2275-8505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02-325-6817

서울여성노동자회 | 02-867-0516

인천여성노동자회 | 032-524-8830

광주여성노동자회 | 062-381-3029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055-261-5362

부산여성노동자회 | 051-852-6647

전북여성노동자회 | 063-286-1633

부천여성노동자회 | 032-668-1011

안산여성노동자회 | 031-495-6844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고양여성민우회 | 031-919-1195

광주여성민우회 | 062-225-0383

군포여성민우회 | 031-396-0201

김포여성민우회 | 031-986-6007

서울남부여성민우회 | 02-459-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02-2643-1253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02-3492-7140

원주여성민우회 | 033-732-4116

인천여성민우회 | 032-525-2219

전주여성민우회 | 055-743-0410

춘천여성민우회 | 033-255-5557

한국여성연구소 | 02-2273-62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02-2269-2962

서울여성의전화 | 02-2263-6464

서울강서양천지회 | 02-2605-8455

광주여성의전화 | 062-364-1366

대구여성의전화 | 053-475-8082



부산여성의전화	051-817-6464	충남여성장애인연대	041-576-9184
울산여성의전화	052-211-1205	시각장애인여성회	02-564-2444
인천여성의전화	032-529-2545	농아인여성회	02-714-3775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0	빛장을여는사람들	02-521-5364
강릉여성의전화	033-643-1982	한국여신학자협의회	02-2275-7754
광명여성의전화	02-681-0238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성남여성의전화	031-751-6677	여성 · 시민 · 사회 · 문화 인권단체	
수원여성의전화	031-232-68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71-0373
시흥여성의전화	031-496-9390	녹색연합	02-747-8500
안양여성의전화	031-454-4394	녹색교통운동	02-708-4855
김해여성의전화	055-329-6451	말사랑아버지모임	02-2273-9535
창원여성의전화	055-266-3722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02-324-7486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5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02-3147-1505
영광여성의전화	061-352-1321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익산여성의전화	063-858-919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2-522-7284
전주여성의전화	063-283-9855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02-392-0181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0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8	여성문화예술기획	02-587-0590
부천여성의전화	032-613-0553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진해여성의전화	055-546-0036	URART	02-336-1875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목포여성의전화	061-283-4551	참여연대	02-723-425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2-365-4016
부산여성장애인연대	051-517-966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9-6851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한국여성재단	02-595-6364
광주여성장애인연대	062-676-2305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031-443-2876
전북여성장애인연대	063-287-8522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43-262-3805	환경정의시민연대	02-743-4747
양천구여성장애인연대	02-2605-8728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02-577-0601
경남여성장애인연대	055-231-5014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인천여성장애인연대	032-763-8271		

한국 여성운동의 버팀목인 여성연합 활동에의 아름다운 참여



“어머니 · 누이 · 딸의 미래, 당신이 만듭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만들기, 밤길다니기 무서워하던 여성들을 위해 제정한 성폭력특별법, 구타당하는 아내와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정폭력방지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일 등 차별받고 무시당해온 여성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첫박한 현장에 여성연합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1987년 창립한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1988년부터 한국의 여성운동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조건없이 기부해 주던 독일 '기독교해의개발원조처 EZZE'의 지원이 2001년 7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여성운동도 한국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법과 제도의 개선활동과 가부장적 의식 · 관행 개혁활동을 추구하는 여성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않고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나섰습니다.

법조계, 문화계, 정치계, 학계, 여성계, 기업인, 공직자, 방송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에 계신 분들이 '여성연합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들만 하는 운동, 또는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틀 속에서 불평등에의 저항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혼에 패인 깊은 상처와 주름은 진정한 삶의 총만함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여성의 삶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당함의 원인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걸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하는 원초적인 고민을 하게 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여성 스스로의 삶에 공명함을 지켜 나아가 사랑과 평화의 힘으로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연합의 활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성연합에의 귀한 동참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과 인정과 격려를 받는 원초적 충족감을 더 넓은 세상에 민들레 흩날려 날려 어머니 · 누이 · 딸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아름다운 참여가 될 것입니다.

여성연합에 모아주시는 후원금은 여성의 미래를 위해 귀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회 참여대상: 개인, 단체, 상점, 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 후원회 참여혜택: 여성연합은 지정기부단체로서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드립니다.

하나, 개인 후원자께서는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연말 종합소득세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두울, 기업 후원은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세엿, 후원회 소식지 및 후원금에 대한 투명 재정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네엿, 여성운동의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활동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섯, 후원회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및 한국여성대회의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후원회 전화 (02)2275-7785, 7788 / 팩스 (02)2273-9539

후원회 이메일 : support@women21.or.kr

후원자 성명

성 별

남 ☐ 여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우편물 받을 주소 (자택 ☐ 직장 ☐)

나머지 주소

소속 / 근무처

연 락 처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

Homepage :

회 원 구 분

자동이체 후원회원 : ☐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월5만원 ☐ 월10만원

평생후원회원 :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원

가 입 등 기

☐ 언론보도 ☐ 홈페이지방문 ☐ 강연·강좌 ☐ 행사참여 ☐ 권유 ☐ 사업 홍보물 ☐ 기타

☐ 후원자님을 추천해주신 달은골 후원자님 성함 :

후 원 계 좌

우리은행 064-1318585-13-108

국민은행 347-25-0007-108

하나은행 29501-0767520

예금주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금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CMS 출금이체 동의서)

후원금 출금

최대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은행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협조로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당첨하신 후원금만큼 자동으로 납부해 드출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후원자님께서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위 장식을 작성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보내주시면

후원금 자동이체 납부신청이 됩니다. 후원금의 마칠 3개월 차장하신 금액이 자동인출됩니다.

단, 무체국과 안의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정으로 CMS 방식으로 자동이체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273-9539)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거나,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전화(02-2275-7785, 7788)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엔 도전한다



협조: 육군사관학교

고정관념이 말합니다. '군대는 남자의 영역이다'

KTF적인 생각이 대답합니다. '군인다움과 남성다움은 다르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엔 도전한다."

KTF적인 생각이 편견의 벽을 허무니다.

KTF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KTF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한나라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나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
한나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
www.hannara.or.kr



국내최초! 테마파크 ISO 9001/14001 인증 획득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합니다.



봄바람이 솔~솔~ 재미가 솔~솔~



서울랜드

봄바람축제

"한국 속의 네덜란드"

- 특별 전시회 (3월 8일 오픈예정)
- 한국속에 숨어있는 네덜란드의 정취를 느껴 보세요.

"바람쐬러 가자, 서울랜드로"

- 특별할인 혜택도 받고, 고급 아이템도 받고..
- (할인권은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세요.)

신선한공기, 신나는하루

자이힐호선 대공원 서울랜드에서 하차 동원원과 국립현대미술관도 함께 즐기세요.

www.sebulland.co.kr

신용카드 무료입장 or 자유이용권 50% 할인

삼성, LG, 국민, BC, 외환, 신한카드 중 서울랜드 제휴카드는 본인에 한해 무료입장 및 자유이용권을 50% 할인 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갈비名家

장미의 언덕 1주년 사은행사

Rose Hill

- 코스요리 주문고객에게는 고급와인 또는 양주 1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 3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10%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예약문의

(02)504-5311~2

고객과 함께, LG와 함께
with LG



친화적인 문화, 열린 LG홈쇼핑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홈쇼핑의 남다른 열정이 전해집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매출 1위, 믿음 1위의 대한민국 대표 홈쇼핑-LG홈쇼핑

LG홈쇼핑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물 LG이숍, DM 카탈로그 등 3개 사업영역으로 구성된 국내1위, 세계3위의
홈쇼핑회사로서, 고객이 100%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헤드리는 '100% 고객만족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홈쇼핑
LG 홈쇼핑
www.lgshop.com



대교그룹 회장 강영중

(주)대교 회장 송자

대교눈높이선생님 김희옥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키우는 그것이 대교가 추구하는 프로정신

한 평생 오직 교육 외길을 걸어왔지만, 더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
위해서라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프로로 키우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프로로 키
아이는 커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프로로 만들기 때문입니
'교육'으로 선생님, 아이들, 나라의 눈높이까지 프로로 올리겠다는
평생 교육의 길을 걸어 온 우리 두 사람의 변치 않는 다짐입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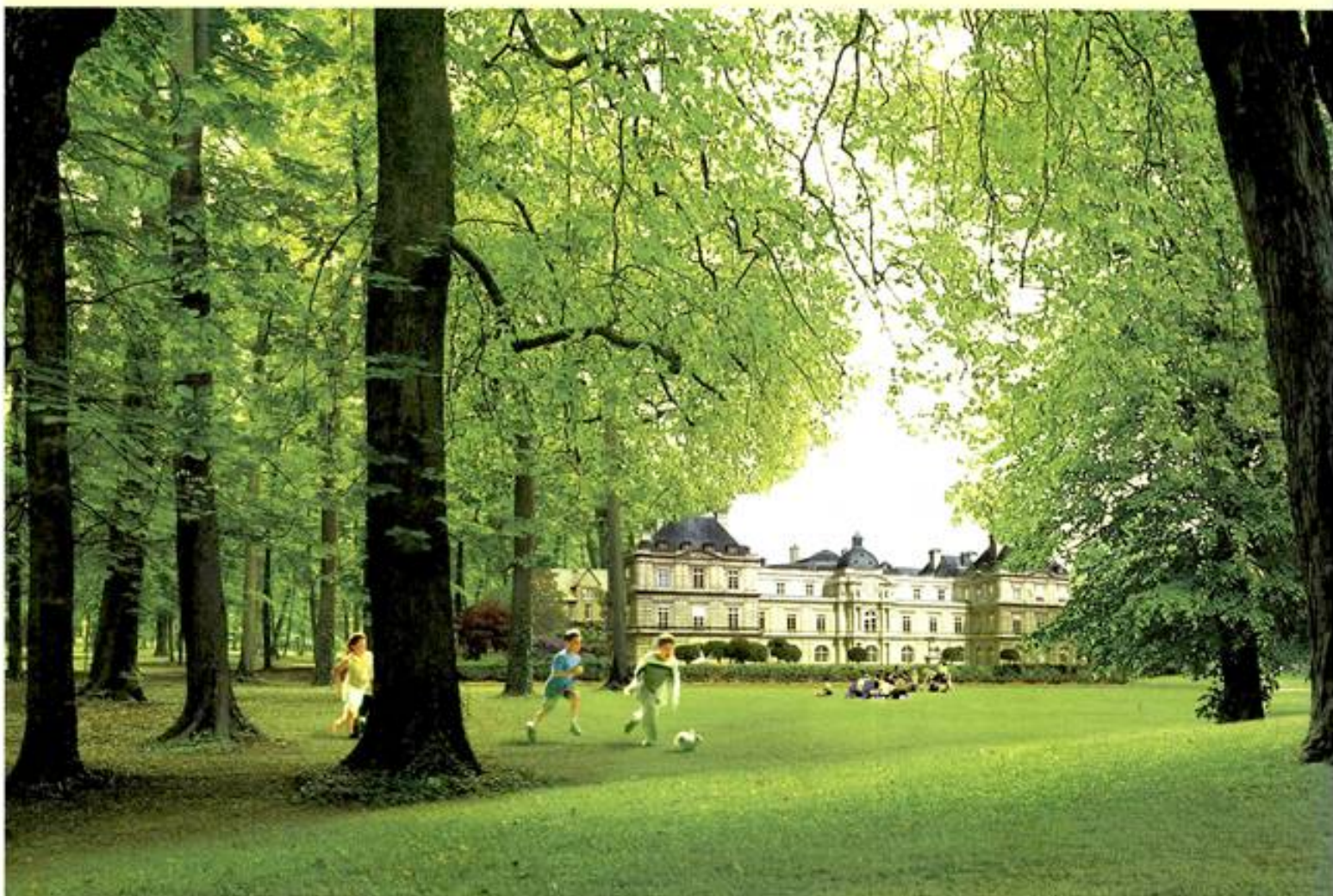


청출어람(靑出於藍)

(순자)의 권학편(勸學篇)에 나온 말. 푸른색은 짙어지면 푸르다. 학문 수양을 계속하면 소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된다. 교육을 통하여 더 훌륭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키워내고자 하는 대교눈높이의 프로정신입니다.



숲이 있는 학교에 미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숲 -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학교숲이 시작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숲은 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그늘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술관, 때로는 과학실이 되어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담 대신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한 마을의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가꿔가는 학교숲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문화의 확대로 공동체 문화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학교숲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뜻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